

빈민지역 아동의 생활환경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江南社會福祉學校 專任講師 金 鍾 舜

目 次

- | | |
|-------------------------|-------------|
| I. 緒 論 | V. 結 果 |
| II. 兒童發達研究에서의 生態學的 接近理論 | VI. 論議 및 提言 |
| III. 調查에서 취급된 要因 | 參 考 文 獻 |
| IV. 調查方法 및 節次 | 英 文 抄 錄 |

I. 緒 論

人類가 있는 社會에서 어린이가 태어난다. 家庭이라는 環境에서 태어난 어린이는 여러가지 方法으로 養育되어 왔다. 그리하여 어린이는 그 家庭으로 시작되는 生活環境에서 身體 및 運動機能, 情緒, 知的要素, 社會性, 性格 등의 여러 측면에서 發達을 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社會的 環境속에서 하나의 個人的 存在로 살아 가게 된다.

太古때부터 조직적이고 형식적인 養育方法은 없었으나 오랜 세월동안 變遷되어 가는 文化와 物質文明에 따라 人類는 어린이를 훌륭히 成長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18世紀 後半期부터는 人道主義者들의 發想에서 시작한 것으로 어린이에게 좋은 教育環境을 만들어 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져 갔다. 점차 그 範圍가 확대되고 種類와 方法이 다양해져서 여러 갈래로 發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60年 이래로 여러 部門에서 급속적인 成長을 해왔다. 全國各地에 大規模 工團들이 건설되었으며 그로인해 地域社會의

間發, 社會生活, 教育등이 복잡한 社會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諸問題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生活環境에서 成長하는 兒童에 대한 教育問題가 크게 강조되고 있다. 特別히 大都市의 곳곳에 散在해 있는 貧民地域의 兒童들에 대해서는 他地域에 비해서 거의 관심을 쏟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實情이다. 지금까지의 여러 研究는 일반적으로 우리社會를 地域的, 空曠的인 측면에서 橫的으로 分化하는 方法에 의해서 農村社會와 都市社會로 區分하여 다루어 왔다. 그러나 先進國家에서 試圖되고 있는 縱的 上下關係의 階層的 構造의 分化方法(Warner & Warner, 1953)은 현재의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은 大形化된 大都市의 社會構造에도 適用될 수 있어 이른바 下流下階級에 속하는 貧民地域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研究는 貧民地域 兒童이 養育되고 있는 生活環境의 要因을 生態學的(ecological)인 측면에서 調查함과 同時에 이를 中流層 兒童의 生態的 環境과 比較함으로써 貧民地域의 兒童教育에 대하여 보다 나은 方向提示를 위한 基礎資料를 提供하고자 함이 그 目的이다.

兒童에 대한 教育과 兒童發達의 研究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研究들은 父 또는 母의 性格, 養育方式, 家庭環境들에 관심을 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生態學的인 측면에서 兒童의 成長問題들 다른 研究는 極小數에 이르고 있다.

兒童發達의 特性과 過程은 계속 成長하는 兒童個人과 끊임없이 變化하는 環境과의 相互作用 내지 相互調整(mutual accomodation)의 過程으로 把握되어야 한다. 心理學에서 生態學的인 측면을 처음 강조한 學者는 Lewin (1944)이다. 그는 非心理界(non-psychological world)와 비교하여 心理生態學(psychological ecology)이라는 用語를 사용하였다. 또 Lewin에 의하면 心理生態學의 主要問題는 地理, 經濟 또는 地域環境과 같은 非心理條件들이 人間行動을 어떻게 決定짓는 지를 밝히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兒童들의 發達可能性을 자극하는 環境的 要因들이 어떤 것이 있는 지를 把握하는 것이 우선의 問題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우리社會는 兒童들에게 어떠한 發達의 機會를 제공하고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環境的 要因들이 成長하는 兒童의 認知的, 社會的 發達에 관련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研究에서 다루고자하는 生態學的인 측면은 크게 네 分野로서 첫째, 家庭環境, 둘째 兒童의 個人的 要素, 셋째, 놀이터 環境, 넷째, 동네環境 등으로 나누고 있다.

生態心理學의 研究方法에 있어서 최근까지 알려져 있는 接近方向들을 살펴보면 Barker와 Wright (1949)는 地域住民들에게서 特徵的인 行動의 場(behavior setting)을 抽出해서 分析하는 方法을 提示하고 있고, Brofenbrenner (1977)는 自然觀察法과 實驗法을 병합한 實驗的 生態學(experimental ecology)을 소개하고 있으며, Oerter (1977)는 勞動構造(worker structure)의 分析을 통한 認知的 社會化研究의 生態學的인 모델을 提示하고 있다. 이 밖에도 統計分析으로 多次元모델등의 여

러 方法이 試圖되고 있으나, 兒童發達에 미치는 生態學的인 要因은 너무도 복잡하고 生態環境의 特性은 文化圈마다 相異하기 때문에 研究方法의 一貫性은 없다. 따라서 이 研究는 가장 보편적으로 使用할 수 있고, 自然的인 事態를 把握하기가 가장 容易한 現場調查를 토대로 하여 이 分野의 基礎研究로서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다른 地域의 兒童들과는 環境의 異로 다른 貧民地域 兒童의 發達 研究에 寄與함이 크다고 본다.

本 研究에서 밝혀보고자 하는 具體的인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貧民地域에서 居住하는 兒童의 家庭環境 즉, 父母의 職業, 住宅의 條件, 自己所有나 賃家나, 兒童은 누구와 잠자리를 같이 하느냐, 兒童이 發病했을 때 治療는 어떻게 하나, 兒童의 間食은 어떤 것이나 등에 對한 調查.

(2) 兒童의 個人的 要因 즉, 自己집에 대한 態度,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 T. V 視聽 時間, 將來의 希望, 父母의 兒童에 대한 希望, 兒童과 제일 많이 같이 놀아주는 사람 등에 대한 調查.

(3) 놀이터 環境 즉, 놀이器具의 數, 놀이터에 가서 놀지 않는 理由, 놀이터가 없는 경우의 놀이 場所등에 대한 調查.

(4) 동네環境, 즉 兒童이 가서는 안 좋은 場所, 兒童을 위한 施設 및 保護地域, 交通, 市場 등에 대한 調查.

II. 兒童發達研究에서의 生態學的인 接近理論

1. 人間-環境關係의 生態心理學

원래, 순수한 生物生態學에서는 生物生態體系인 有機體와 그 有機體가 속하고 있는 環境間의 相互作用을 파악해 내는 것을 學問의 目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關係에서는 有機體가 環境이라는 生活條件에 대해서 스스로 調節하여 機能的으로 適應을 해 나가야만이 個體의 存在가 가능한 단순한 相關關係에 능

여 있다. 그러나 人間의 生態體系는 순수한 生物生態體系에 비하면 훨씬 次元이 높다. 一般動植物은 個體의 生存과 繁殖을 위하여 環境에 대해 끊임없이 機能的 適應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基底를 이루고 있고, 그 環境은 時空的 延長性이나 再生性이 약하다. 이에 비하여 人間은 그들의 環境을 이해하고, 概念化作用(representation)을 하며 再現시켜가며 때로는 操作하고 改造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人間의 生態體系는 時空的 延長性이 크고, 再生性이 복합적이라는 점이 重要하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個個人間이 특유한 主體性을 가지고 環境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主宰者일 수는 없다. 비록 그것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有機體는 全體 生態體系속의 한 要素에 불과하고, 要素間的 相互作用으로 인하여 이룩되는 自然의 平衡維持에 歸因하는 하나의 部分에 불과하다.

人間의 生態를 다루고 있는 生態心理學은 生物生態學이나 場理論, 社會心理學 그리고 環境心理學등과 밀접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生態心理學은 人間行動이나 그 發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研究하는 學問으로 크게 나누면 두가지의 立場에서 接近하고 있다. 첫째는 人間行動을 그들의 自然的 事態속에서 그 關係性을 밝혀보자는 점이고, 둘째는 人間의 環境을 단순히 人間에게 주는 刺戟이라고 보다 거시적인 水準에서 分析하고 說明이 가능한 方向으로 이끌고자하는 점에서 出發된다(Wicker, 1979), 또한 Bronfenbrenner (1977)에 의하면 生態心理學의 立場은 人間の 全生涯中の 한 行動斷面이나 그 行動過程을 微視的 刺戟에 대한 단순한 反應으로 보기 보다는 有機體-環境間的 生態體系(ecosystem)內에서의 부단한 相互作用을 통하여 體制的 平衡을 유지해 가는 過程 또는 그 過程中的 一面으로 理解하고자 하는 立場이다.

Barker 와 Wright (1955), Barker (1968)는 人間行動의 흐름을 行動에피소드(behavior episode)로 分類해서 記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立場에서 人間の 活動과 環境狀況

을 의미있는 單位로 分析하는 方法을 開發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方法에 있어서나 理論의 主體가 강하지 못하다는 것이 認定되고 있다. 왜냐하면 行動에피소드를 規定하는 方法은 어떤 의미로는 常識의인 水準에 머무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問題點은 현재의 生態心理學 研究에서 解決하기 어려운 課題로 남아 있다.

心理學의 基本問題의 하나는 個人과 環境間的 理論的 差異에 있다. 個人은 근본적으로 環境과는 다른 性質의 것이다. 즉, 精神的 또는 心理的 過程이 環境의 物理的 過程과는 다른 特徵을 가지고 있다. 心理學에서 問題삼는 人間과 環境間的 相關性은 環境과 獨立되어 構造, 調節體系, 能力등으로 看做되어 人間에게 또한 人間內部에서 進行되는 過程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하여 人間-事態 相互作用에 관한 현대적 概念은 人間の 性格 構造 또는 性格調整이 事態와 作用하는 것에 限해서만 成立되어 왔다. 人間과 環境은 모두 分離된 單位로서 看做되어 왔으나, 人間-環境의 相互作用은 이 兩者를 동시에 고려해 보는 試圖方案의 하나이며 곧, 統計的 意味를 모색해 보는 性質의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環境條件이 人間條件으로 해석되고 또 어떻게 人間の 作用이 環境으로 전달될 수 있는가 하는 問題가 오래전부터 提起되어온 바가 있다 (Walter, 1963).

人間-行動關係는 行動을 통하여 定立되며 環境은 다만 行動可能性을 고려해서 人間을 위하여 記述되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方法으로 Barker (1968)는 環境과 그에 속하는 行動間에 同行性(synomorphie)을 가정한 行動의 場(behavioral setting)이란 概念을 設定했다. 유사하게 Argyle (1972)등과 같은 學者들은 行動의 場으로서 環境을 分析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行動의 場으로 環境을 分類하는 것은 事態에 대한 중요한 假定을 포함한다. 個人-環境關係를 한정하는 데 決定적인 役割을 하는 것은 主觀적 解析이다. 決定的 行爲에 포함되고 있는 客觀的 事態 모두가 行爲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個人이 事態에 부여하는 意味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몇몇 學者들은 個人이 主觀的으로 解釋하고 있는 事態의 役割을 認定하고 強調하고 있다. (Koffka, 1935; Lewin, 1926; Kelley, 1955)

主觀的 事態에 대한 體系的 考察은 대단히 重要的 것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側面에서 問題點을 갖고 있다. 첫째, 個人이 그의 行爲속의 事態에 대한 主觀的 解釋內容과 그 個人과 關係하는 他人의 要素와 함께 고려해야 할 경우에, 이것으로 인해 相互支持하고 補充的 關係에 있는 全體의 狀況에서 個人의 認知 構造의 要素를 組織的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環境과 人間自體의 고유한 體驗樣式이 問題된다. 따라서 Lewin의 生活空間과 같이, 事態와 人間의 要素를 分離하지 않고 人間-事態 全體를 把握하는 것은 意味있을 것이다. 行爲課題를 徹底的하게 質問紙로 調査한다면 實際環境에서의 實際行爲에 관해서 자세히 알게 될 것이다. 둘째, 主觀的으로 해석된 事態를 지나치게 強調한다면 客觀的 要素를 度外視하기가 쉽다. 客觀的 事態와 主觀的 事態는 어떤 關係에 있는가? 여기서는 方法論的인 것에 問題가 있는 것은 아니다. 즉 客觀的 事態가 主觀的인 것보다 方法論的으로 더 쉽고 더 정확하게 記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主體가 그의 事態에 입각한 個的인 態度에 따라 취급되더라도 그의 行爲는 事態의 客觀的 特徵에 맞아야 하고, 아울러 個的인 事態가 全體로부터 獨立해서 存續해야 하는 二重性을 띠고 있으며, 他人의 要素를 무시하지 않는 狀況에 대한 客觀的 結果를 가져야 한다. 生態學的 問題는 원래 이러한 事態의 二面性을 고려해야 한다.

2. 生態學的 發達心理學的 基礎概念

지금까지는 人間과 環境의 連結關係에서 生態心理學이 가질 수 있는 理論的 展望이나 問題點에 대한 것을 記述하였다.

心理學的으로 個人的 考慮의 缺如는 發達特徵을 참작할 때에 더욱 명백하게 나타난다. 發達問題

에서는 每時期에 오리엔테이션과 行爲의 業績(achievement)을 구체적 環境에다 抱含시킨다. 예컨대 發達尺度의 設定으로서 發達法則을 추구할 때 이러한 過程은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Piaget (1970)도 同化(assimilation)와 調整(accomodation)의 相互作用의 均衡모델의 現實的 構造를 論理的 構造業績으로 이해했는데, 이는 뚜렷하게 主觀的 面에 固定된 것이다. 相互作用과 同化 및 調整 過程은 個人的 스키마(schema)를 變化시키고, 環境自體는 變化시키지 않고 環境에 適應하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 따라서 個人的 스키마構造는 虛構일 수 있고, 論理的 體系로서는 가능하겠지만 個個人的 行爲發達을 논할 때는 個人的 發達에서 變化된 環境關係를 把握하며, 동시에 個人과 環境의 實際的인 相互作用을 밝혀 내야 한다.

發達心理學에는 오래전부터 生態學的 側面의 要素를 活潑하게 適用하는 데 적합한 概念이 있다. 이는 發達課題의 概念으로서 文化的 要求에 따라 一生동안 적극적으로 調和를 이루는 個人的 成就能力을 말한다 (Erikson, 1976; Havighurst, 1972). Havighurst는 각 發達段階에 따라 文化的으로 정해진 課題에는 個人的 生物學的 可能性에 맞추어 극복되어야 하는 必要條件들이 存在한다는 假定에서 發達課題研究가 出發되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發達心理學的인 面에서 關心의 對象이 되는 것은 因果的으로 分離되어 이끌어 낼 수 있는 發達段階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個人的 努力과 社會, 文化的 課題設定의 相互作用을 추구해야 한다는 結論이다. 또 이 概念에서 生態學的으로 意味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각 發達段階에서의 課題와 必要條件의 段階化로서 環境要素를 體系化하려는 試圖이다.

實際的 相互作用에서 보면 個人에 의해서 발생된 문제점은 環境에 適應하려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發達의 原因의 要因으로 看做되고 있다. Uzgiris (1979)가 初期兒童의 發達에 관한 實驗을 한 結果를 보면, 環境속에서 어떤 行爲를 나타나게 하는 對象이 있을 때

에만 그러한 行動들이 獲得되며 維持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實驗者가 어떤 特定한 行動形態를 對象이 없이 學習시키려는 意圖는 挫折되고 말았다. 이 結果는 人間-環境-交友와 그 發達の 斷面을 立證하고 있다. 따라서 人間行動은 원래 大部分이 人間對 對象 또는 對象領域이란 두가지 面에 의해 特徵지을 수 있다.

III. 調查에서 취급된 要因

1. 家庭環境 : 父母의 職業, 住宅의 條件, 住宅의 所有, 兒童의 잠자리, 兒童의 病治療 方法, 間食
2. 兒童의 個人的 要因 : 自己집에 대한 態度, 恐怖의 對象, T.V 視聽時間, 將來의 希望, 兒童의 놀이對象人物
3. 놀이터環境 : 놀이器具의 數, 놀이터에 가지 않는 理由, 놀이터가 없는 경우의 놀이場所
4. 동네環境 : 兒童에게 좋지 않은 場所 兒童福祉施設, 交通, 市場.

IV. 調查方法 및 節次

1. 被驗者

서울시내 貧民地域中에서 봉천동 일대(27명), 시흥1동(15명), 중구 양동일대(28명)의 兒童 70 명을 貧民地域兒童으로 택했다. 中流層 兒童은 흑석동, 반포동, 상도동, 방대동일대의 兒童으로서 88 명을 對象으로 調查하였다.

表 1. 被驗者 數 및 年齡分佈

계층 연령	5 세	6 세	7 세	전 계
빈민지역	25	33	12	70
	남 10	남 18	남 7	남 35
	여 15	여 15	여 5	여 35
중류층	17	60	11	88
	남 10	남 28	남 7	남 45
	여 7	여 32	여 4	여 43
전 계	42	93	23	158
	남 20	남 46	남 14	남 80
	여 22	여 47	여 9	여 78

2. 調查道具

本 研究를 위해서 제작한 質問紙를 사용하였다. 유치원 아동 5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豫備 調查를 토대로 質問紙를 수정조절하였다.

3. 資料蒐集

강남사회복지학교 保育學科 3학년 학생들이 각가정을 방문하여 質問紙를 나누어 주고, 한 問項씩 읽어주면서 應答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調查는 1980年 10月 5일부터 30日間 실시되었다.

4. 統計의 分析

各 問項別로 應答한 것을 變因에 따라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自由應答의 問項에 대해서는 內容別로 묶어서 그 빈도를 백분율로 계산하여 比較하였다.

V. 結 論

I. 家庭環境

(1) 父母의 職業

父母의 職業分佈 表 2 에서 가장 두드러지

表 2. 父母의 職業分佈(%)

계층	직업	회	상	공	사	건	약	운	목	공	광	세	교	의	군	기	회	교	피	무	전
		사	업	무	업	축	사	수	사	업	업	무	사	사	인	자	계	수	아	용	체
빈민지역	부	24.3	52.9	2.9	4.3	4.3	1.4	1.4	1.4	1.4	1.4	1.4								2.9	100
	모	1.4	12.9				1.4														84.3
중류층	부	39.8	13.6	12.5	10.3	2.3	2.3	1.1		2.3			6.8	1.1	1.1	1.1	1.1	2.3		2.3	100
	모		1.1		1.1		4.5						5.7						1.1	86.5	100

게 나타나는 것은 貧民層의 父의 職業이 折半程度가 商業(52.9%)인 반면에, 中流層은 會社員(39.8%)이 主種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 表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調查資料에는 商業도 대단히 種類가 많고, 貧民層의 商業은 주로 零細商人인 것을 알 수 있었다. 一般的으로 知的인 能力을 要求하는 職業은 中流層이 貧民層보다 더 많이 나타나 있다. 母가 職業을 가진 경우는 貧民層의 商業이 많은 반면에 中流層은 母의 職業이 教師나 藥師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또 貧民層의 母가 父를 도와서 商業에 같이 從事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2) 住宅의 條件

表 3. 住宅의 條件(%)

구분 계층	양육			
	양육	한육	아파트	전체
빈민 지역	42.9	49.9	7.2	100
	자가 24.3	17.1	4.3	자가 45.7
	세가 18.6	32.8	2.9	세가 54.3
중류층	45.4	19.3	35.3	100
	자가 22.7	15.9	33.0	자가 71.6
	세가 22.7	3.4	2.3	세가 28.4

住宅의 條件(表 3)에서는, 貧民層은 90% 이상인 洋屋이나 韓屋인데 比하여 中流層은 아파트에 居住하는 사람이 35.3%나 되어 貧民層의 5배가 많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洋屋의 경우는 貧民層, 中流層이 모두 비슷한 比率이다. 또 賃를 들어 사는 경우는 貧民層(54.3%)이 中流層(28.4%)보다 두배가 많다. 이것으로 貧富의 差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3) 寢室의 使用

兒童이 잠을 잘때 누구와 같이 자느냐하는 것이 表 4에 있다. 全體平均을 먼저 보면 貧民層의 경우는 父母와 같이 자는 것이 67.7%로 使用하는 房의 數가 적음을 나타내고, 中流層보다는 兒童의 獨立的인 房使用에 대한 物理的, 心理的 여유가 없음이 뚜렷하다. 반면에

表 4. 寢室의 使用(%)

연령 계층	구분	혼자 잔다.	부모와 같이 잔다.	형제(친 족)와 같이 잔다.	친족의 사람과 같이 잔다.
		빈민 중류	— 14.3	76.0 28.6	24.0 57.1
6세	빈민	—	60.6	39.4	—
	중류	7.1	35.7	57.2	—
7세	빈민	16.7	66.6	16.7	—
	중류	18.2	45.4	36.4	—
전체 평균	빈민	5.6	67.7	26.7	—
	중류	13.2	36.6	50.2	—

中流層의 경우에는 혼자자는 兒童의 數가 貧民層보다 두배이상의 많은 比率을 보이고 있다. 또 父母와의 兄弟나 親族(예, 祖父, 祖母 三寸등)과 같이 房을 使用하는 것도 中流層이 50.2%로 貧民層보다 훨씬 높은 比率이다. 그러나 親族외의 사람(예, 가정부등)과 같이 자는 兒童은 本 研究의 標集에서는 한 사람도 없음이 特記할만한 일이다.

年令別로 보면 5~6세의 貧民層 兒童은 혼자 房을 使用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中流層의 兒童도 7세가 되어야 獨房을 쓰는 比率이 높아가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4) 아픈경우의 治療方法

表 5는 兒童이 發病했을 때 治療를 어디서 하느냐를 타진한 것이다. 물론 病의 程度나 種類에 따라 다르겠지만 兒童의 病에 對한 父母

表 5. 아픈경우의 治療方法(%)

구분	연령 계층	5세	6세	7세	전체 평균
		병원 에서	빈민 중류	8.0 42.8	42.4 70.0
약국 에서	빈민	60.0	48.5	50.0	52.8
	중류	28.6	20.0	27.3	25.3
집 에서	빈민	32.0	9.1	33.3	24.8
	중류	28.6	10.0	9.1	15.9

의 一般의 態度를 把握한 것이다. 年令別로 보면 5~6세의 兒童이 發病했을 경우에 貧民層이나 中流層 兩쪽 모두 病院에 데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7세부터는 집에서 自家治療를 中心으로 處理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全體平均에서는 貧民層, 中流層의 治療方法이 뚜렷이 差異가 나고 있다. 貧民層이 病院(22.4%)에 가는 것보다 藥局(52.8%)에 가는 것이 높고, 반면에 中流層은 藥局(25.3%)

에 가는 것보다 病院(58.8%)에 가는 比率이 높다. 또 집에서 治療하는 경우도 貧民層이 中流層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 兒童의 發病頻度에 대한 父母의 知費에 대해서도 調査한 바 있으나 두集團間의 뚜렷한 差異는 發見할 수 없었다.

(5) 間食의 種類

兒童의 健康관리에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間食의 種類(表 6)에 대한 調査를 하였다. 表

表 6. 간식의 종류(%)

구분	우유	과일	빵	과자	코코아	검	떡	아이스림	라면	야르트	푸딩	고구마	감자
빈민	30.4	21.1	20.4	21.8	0.7	0.7	1.4	0.7	0.7	1.4	0.7	-	-
중류	23.5	27.5	21.5	18.2	0.8	0.4	0.4	2.8	-	3.6	1.4	0.8	0.4
전체평균	26.9	24.3	20.9	20.0	0.8	0.6	0.9	1.8	0.4	2.5	1.1	0.4	0.2

6에서는 各各의 兒童이 주로 먹는 間食에 대한 내용을 面談을 통해 조사하여 그 頻度를 나타낸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兩集團에서 가장 많이 먹는 間食은 우유이고, 그 다음이 과일, 빵, 과자의 順으로 되고 있다. 全體的 傾向으로 보아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貧民層보다 中流層의 兒童이 과일을 더 많이 攝取하

는 점이다. 間食의 量에 대해서도 調査하였으나 個人差에 따라 質的 量的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별도의 調査方法을 必要로 하고 있다.

2. 兒童에 관한 要素

(1) 自己집에 대한 態度

兒童自身の 집에 대한 態度調査의 하나로서

表 7. 자기집에 대한 태도(%)

구분	우 리 집				친 구 집			
	5 세	6 세	7 세	전 체	5 세	6 세	7 세	전 체
빈민	21.4	40.1	15.7	77.2	14.3	7.1	1.4	22.8
중류	8.0	65.9	9.1	83.0	-	13.6	3.4	17.0

自己집이 좋으나 친구집이 좋으나하는 質問 調査를 하였다. 물론 이 資料로서는 친구집을 擇한 準據가 不分明하겠지만 여기서 把握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집이 싫으나 좋으나에 대한 準據를 친구집으로 定하였다. 全體적으로 貧民層 兒童이 平均 77.2%, 中流層 兒童이 平均 83.0%程度로 자기집을 친구집보다 좋아

하고 있다.

表 8은 兒童의 知覺中의 하나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對答하게 한 結果이다. 年令에 따라 나타난 頻度를 그대로 記錄한 것이다. 全體적으로, 兒童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恐怖의 對象은 호랑이와 귀신이고, 특히 두集團間에 頻度の 차가 나는 것은 불이나 疾病을

表 8.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 (%)

구분 연령	계층	도개비	호랑이	공룡	사람	지옥악마	코끼리	귀신	사자	드라큐라	독수리	하느님	도둑강도	지진	전쟁	로봇트	부영이	질병	벌레	괴물	속임수	쥐	칼	없다	
		5세	빈민	3.8	15.4	3.8	3.8	3.8	-	-	23.1	3.8	-	-	3.8	-	-	-	-	3.8	7.6	-	-	-	-
	중류	2.9	1.4	1.4	1.4	-	-	-	-	-	-	-	-	-	-	-	-	-	-	-	-	-	-	-	
6세	빈민	7.6	7.6	3.8	3.8	7.6	-	3.8	-	26.9	-	-	-	-	-	-	7.6	-	-	-	-	-	-	30.7	
	중류	4.3	14.3	5.8	4.3	-	8.6	2.9	2.9	14.3	11.4	1.4	1.4	1.4	1.4	4.3	2.9	2.9	1.4	-	-	-	-	15.7	
7세	빈민	-	3.8	3.8	3.8	-	-	-	3.8	3.8	-	-	-	7.6	-	-	-	-	-	-	3.8	3.8	7.6	3.8	7.6
	중류	1.4	1.4	1.4	1.4	-	-	-	-	2.9	1.4	-	-	1.4	-	-	1.4	1.4	-	-	-	-	-	-	4.3
전체평균	빈민	3.8	8.9	3.8	3.8	1.3	1.3	-	17.9	2.5	-	3.8	-	-	-	-	-	1.3	2.5	1.3	1.3	2.5	1.3	20.5	
	중류	2.8	5.8	2.9	2.4	0.5	2.9	0.9	10.2	4.6	0.9	1.7	0.5	1.4	1.4	0.9	0.5	0.5	0.5	-	-	-	-	-	6.7

들 수 있다. 그러나 統計的 意味은 없다. 兒童의 恐怖에 대한 知覺的 理論은 論議에서 다루기로 한다.

(3) T. V 視聽時間

全體的으로 T. V 視聽時間은 貧民層이나 中流層間的 差異는 거의 없다. 두 集團 모두가 一般的으로 5~6 世의 兒童이 1-2時間 程度로 T. V 를 視聽하고 있다. 좀더 자세하게 말

表 9. T.V. 시청 시간 (%)

시간	계층	5세	6세	7세	전체
1시간	빈민	14.3	7.1	5.7	27.1
	중류	4.6	29.5	2.3	36.4
2시간	빈민	17.2	28.6	5.7	51.5
	중류	2.3	35.2	10.2	47.7
3시간	빈민	4.3	11.4	5.7	21.4
	중류	1.1	14.8	0	15.9

하면 2時間 程度 視聽하는 경우가 平均 49.6 %로 가장 높은 比率이다. 그 다음이 1時間, 3時間의 順이다.

(4) 將來의 希望職業

兒童自身の 將來希望職業과 父母가 兒童에게 期待하는 將來의 職業에 대한 調查結果가 表 10 과 같다. 貧民層의 兒童이 自身の 希望을 밝힌 바를 먼저 보면, 가장 頻度가 높은 것은 軍人이고, 그 다음이 教師, 醫師의 順으로 나타났고, 中流層 兒童의 경우는 自身の 將來職業은 醫師, 教師, 科學者 順의 比率로 되어있다. 다음은 父母가 兒童에게 期待하는 將來의 職業은 貧民層이 醫師, 教師, 軍人의 順으로 나타났고, 中流層도 醫師, 教師, 藝術家 順으로 比率이 높게 나타났다. 特別히 運動선수 의 경우는 貧民層에서는 自身이나 父母가 비슷한 比率에 比하여 中流層은 自身이 父母보다 더 運動선수를 願하고 있다. 반대로 博士

表 10. 장래의 희망 직업(%)

계층	구분	직업	대	사	군	박	교	의	과	법	비	가	약	예	간	상	연	경	건	공	목	운	무
			통령	업가	인	사	사	사	학자	학자	행사	수	사	술가	호원	업	론인	찰	축가	무원	사	동선수	용답
빈민	자신	4.3	-	25.7	-	20.0	8.6	5.7	-	1.4	4.3	-	2.9	8.6	-	-	2.9	-	-	-	4.3	11.3	
	부모	-	1.4	5.7	2.9	11.4	12.5	1.4	1.4	-	-	1.4	4.3	2.9	1.4	1.4	-	-	4.3	1.4	4.3	4.3	42.8
중류	자신	11.4	1.1	6.0	2.3	20.4	20.2	17.0	1.1	-	-	-	10.2	1.3	-	-	1.1	1.1	1.1	-	5.7	-	
	부모	-	2.3	-	2.3	10.2	25.0	-	5.7	-	-	1.1	6.8	1.1	-	-	-	1.1	4.5	-	-	-	39.9

에 대해서는 中流層이 父母나 自身이 비슷한 比率인 것에 比해, 貧民層에서는 兒童에 比해 父母는 거의 없는 比率로 나타났다.

(5) 세상에서 제일 갖고 싶은 것
 兒童이 세상에서 제일 가지고 싶어 하는 對

象에 대한 頻度를 나타낸 것이 表 11이다. 全體的으로 보면 兩쪽 集團 모두에서 장난감이 제 1의 順位이고, 그 다음이 樂器, 自動車 등으로 나타났다. 두 集團間의 頻度 差가 크게 보이는 것은 책이나 물라스케이트등을 中流

表 11. 세상에서 제일 갖고 싶은 것(%)

연령	구분	자	장	동	시	동	양	건	악	카	자	물	진	무	내	이	현	책	날	우	오	에	놀	비	별	없
		동차	난감	생계	물	복	강	기	라	거	트	총	기	집	옷	책	미	가	는	주	토	쁜	이	데	오	장
5세	빈민	3.0	36.0	3.0	3.0	6.0	3.0	3.0	6.0	3.0	-	-	-	-	-	-	-	-	-	-	-	-	-	-	-	12.1
	중류	1.4	1.4	-	-	-	-	-	-	-	1.4	-	-	-	-	1.4	-	1.4	1.4	1.4	-	-	-	-	-	-
6세	빈민	3.0	42.4	3.0	-	3.0	3.0	3.0	6.0	-	6.0	3.0	3.0	3.0	3.0	3.0	-	-	-	-	-	-	-	-	-	9.8
	중류	4.3	42.9	-	-	4.3	4.3	-	5.7	-	7.1	2.8	-	-	2.8	5.7	-	-	-	1.4	-	1.4	2.8	2.8	1.4	10.0
7세	빈민	-	18.2	-	-	-	-	-	-	-	-	-	-	3.0	-	-	-	3.0	-	-	-	-	-	-	-	9.0
	중류	-	7.1	-	-	-	-	-	1.4	-	-	-	-	-	-	1.4	-	-	-	-	1.4	-	-	-	-	5.7
전체평균	빈민	2.0	32.2	2.0	1.0	3.0	2.0	2.0	4.0	1.0	2.0	1.0	1.0	2.0	1.0	1.0	1.0	1.0	-	-	-	-	-	-	-	11.1
	중류	2.8	17.1	-	-	1.4	1.4	-	2.4	-	2.4	1.4	-	-	-	9.3	2.8	-	0.5	0.5	0.9	0.5	0.5	0.9	0.9	0.5

層 兒童이 더 많이 願하고 있다. 갖고 싶은 物件은 兒童의 好奇心의 發露에서 나온 것이다. 장난감이 가장 높은 比率로 나온 것은 역시 範圍가 가장 넓고 兒童의 生活와 밀접한 關係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6) 兒童과 가장 많이 놀아주는 사람
 兒童에 대한 關心度를 나타내는 것으로 누

表 12. 아동과 제일 많이 놀아 주는 사람(%)

구분 계층	아버지	어머니	형제	할머니	친구	삼고이 촌모모	없다
빈민	5.7	22.9	48.6	7.1	11.5	2.8	1.4
중류	11.4	29.5	52.3	3.4	2.3	-	1.1

가 兒童과 같이 가장 많이 時間을 보내며 놀아주느냐하는 質問에서, 貧民層(48.6%)이나 中流層(52.3%) 모두 兄弟가 가장 많이 놀아

준다고 했으며, 그 다음이 어머니, 아버지의 順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어머니, 兄弟는 中流層이 더 높고, 반면에 할머니 친구, 친척의 경우는 貧民層에 더 많은 比率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貧民層은 밖에 나가면 여러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環境條件을 意味하고 있다. 또 아버지가 自己와 얼마나 놀아 주느냐 하는 質問을 별도로 하였는데 여기서는 表로 提示되지 않았지만 平均 30% 이상이 자주 놀아준다고 했고, 最小한 60% 이상이 놀아주는 쪽으로 知覺을 하고 있다. 이에 比해서 약 20%程度는 아버지가 自己와 놀아주지 않는 것으로 對答하고 있다. 여기서 貧民層과 中流層間의 큰 差異는 發見할 수 없었다.

3. 놀이터 環境

(1) 놀이 器具의 數

놀이터 環境에 대한 調查結果가 表 13에 있다. 이와 同時에 調查한 놀이터 有無에 대한

表 13. 놀이터 놀이 기구의 수(%)

구분 계층	그네	미끄럼틀	철봉	뽕뽕이	시이소오	평균대	모래장	정글집	나무	꽃밭	잔디
빈민	35.7	40.0	31.4	24.3	24.3	12.9	12.9	11.4	24.3	14.3	14.3
중류	50.0	51.1	39.8	37.5	39.8	12.5	37.5	15.9	36.4	27.3	25.0

比率는 놀이터가 있는 兒童이 貧民層 24.3%, 中流層 40.1%로 나타났다. 表 13의 各數는 頻度の 比率로서 貧民層과 中流層間에 數의 差가 나타나고 있다. 놀이터에 가장 많이 있는 놀이器具는 두 集團 모두가 미끄럼틀이다. 그 다음이 그네, 철봉, 시이소오의 順이다. 貧民層과 中流層間에 가장 比率의 差가 큰것은 모래장이다. 그 다음에 놀이터에 있는 自然植物의 數에 대한 比率는 中流層이 貧民層보다 두배로 많다. 이러한 施設이나 環境에 대한 質的인 調査는 이 研究에서 除外되었다. 그러나 놀이터가 비좁다고 느끼는 정도에 대한 質問에서 貧民層이 20%, 中流層이 14.8%가

비좁다고 應答하고 있다. 또 놀이터에 가서 노느냐에 대한 應答에서 貧民層, 中流層에서 差異가 나질 않고 平均 20%程度가 놀이터에 가서 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놀이터에 가서 놀지 않는 理由

놀이터가 동네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놀이터에 가서 놀지않는 理由(表 14) 中에 가장 比率이 높은 것은 '멀어서'(빈민층 26.6%, 중류층 20.8%)이고 그 다음이 '위험해서'(빈민층 2.4%, 중류층 1.9%), '놀것이 없어서'(빈민층 0.9%, 중류층 7.6%) 順이다. 또 '어머니가 못가게 하는' 父母의 挽留에 의한 것이 貧民層 0.9%, 中流層 2.3%나 나타나고

表 14. 놀이터에 가서 놀지 않는 이유(%)

연령	구분 계층	멀어서	위험해서	너무 멀어서	다른애들 때 문 에	어머니가 못가게해서	놀이할것 이없어서	애들과어울 리지못해서
		5 세	빈 민	29.9	-	2.9	-	2.9
	중 류	5.7	2.3	-	-	-	-	-
6 세	빈 민	42.9	-	-	4.3	-	-	-
	중 류	50.0	1.1	-	1.1	6.8	20.5	-
7 세	빈 민	7.1	7.1	-	-	-	2.9	-
	중 류	6.8	2.3	-	-	-	2.3	1.1
전 체 평 균	빈 민	26.6	2.4	0.9	1.4	0.9	0.9	-
	중 류	20.8	1.9	-	0.4	2.3	7.6	0.4

있다.

(3) 놀이터가 없는 경우의 놀이장소

놀이터가 없는 경우의 놀이장소(表 15)는全體平均의 比率로 보아서는 貧民層과 中流層間의 差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比

率이 높은 場所는 자기집이고 그 다음이 친구집, 골목길, 동네공터의 順이다. 學校運動場에서 노는 경우는 貧民層(5.1%)이 中流層(1.9%)보다 높은 比率이다.

表 15. 놀이터가 없는 경우의 놀이 장소(%)

연령	구분 계층	대문앞	친구집	자기집	골목길	동네 공터	학 교 운동장	도로변	아파트 마 당	기 타
		5 세	빈 민	12.0	12.0	40.0	8.0	20.0	4.0	4.0
	중 류	29.4	11.8	52.9			5.9			
6 세	빈 민	15.2	21.2	39.4	9.1	12.1	3.0			
	중 류	6.7	21.7	45.1	13.3	8.3		1.6	3.3	
7 세	빈 민	8.3	16.7	25.0	16.7	8.3	8.3	16.7		
	중 류		9.1	9.1	27.3	27.3		18.2		9.1
전체 평균	빈 민	11.8	16.6	34.8	11.3	13.5	5.1	6.9		
	중 류	12.0	14.2	35.7	13.5	11.9	1.9	6.6	1.1	2.9

4. 동네 環境

(1) 兒童들이 가서는 안되는 場所

表 16을 보면, 貧民層이나 中流層에서 가장 염려가 되는 危險 場所는 큰 차길이다. 貧民層에 그 다음의 危險 場所는 기타 地域인데 應答內容에서 쓰레기버리는 場所, 가파른 언덕길 등으로 나타났다. 遊興街는 中流層(4.4%)에 비해 貧民層(12.9%)이 많이 나

表 16. 아동들이 가서는 안되는 장소(%)

구분 계층	유 홍가	불량배 가다니 는거리	공장 공해	큰 차길	그외 지역	없음
	빈민	12.9	7.1	1.4	52.9	25.7
중류	4.4	1.8	-	49.5	2.2	42.1

타았고, 또 貧民層은 工場公害로 인해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2) 동네의 汚物, 쓰레기 處理가 안되는 경우는 貧民層이 14.3%이고, 中流層이 4.5%로 應答하고 있다. 處理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貧民層(48.6%)보다 中流層(70.5%)이 더 높은 比率로 나타났다.

VI. 論議 및 提言

生態學的 發達心理學은 계속적으로 個人과 環境間의 相互關係를 把握하고 原因의인 影響들을 發見하며 個人에 있어서의 環境의 條件이나 作用의 變化나 環境에 있어서의 個人的 條件의 變化를 說明해야하는 어려운 問題를 다루어야 한다. 生態學的인 症候들을 기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 理論的으로 精確하게 整理가 되어 있지는 않으며 또한 실로 그러한 것이 가능한지 斷定지을 수도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研究는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Oerter(1977)에 의하면 相關統計의 分析과 變因, 세팅分析, 個人과 環境에 대한 공동적인 카티고리研究등으로 研究方法이 요약되고 있다.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 研究는 自然的인 事態를 把握하기가 가장 용이한 兒童의 環境의 要素에 대해서 現場調査를 토대로 하는 基礎研究가 그 目的이었다. 구체적인 內容으로는 貧民地域 兒童이 어떠한 環境에서 養育되고 있는지를 中流層兒童과 比較하여 調査資料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調査對象 兒童의 數와 地域的 標集의 크기가 統計的으로 충분치 못한 것이 未備點이기는 하지만, 極小數에 불과한 이 分野의 研究에 基礎的인 資料를 제시하는 데에 이 研究의 意義를 찾아볼 수 있다고 본다. 各 要素別로 論議해보는 內容은 다음과 같다.

父母의 職業分布를 알아본 調査結果에서 貧民層 兒童의 父母가 가지고 있는 職業은 商業이 가장 높은 頻度로 나타났다. 이 地域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農漁業에 종사

하다가 都市로 轉入한 것으로 보이며, 商業의 規模도 대다수가 영세상인으로 生計를 이어가고 있다. 또 母가 職業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다소 많이 나타났다. Hurlock(1950)에 의하면 母의 職業有無에 따라 兒童이 知覺하는 父母의 態도와 生活方法등에 差異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理論에 대한 우리나라 兒童의 경우를 比較해 보는 구체적 研究가 次後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兒童이 혼자 자는 경우와 부모와 같이 자는 경우에 대한 原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방의 餘裕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兒童이 父母가 떨어져 자기를 원치않는 경우를 들 수 있겠고, 둘째, 사용하는 방의 數가 실제로 모자라서 원치않지만 같이 자야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貧民層의 兒童인 경우에는 後者의 原因일 可能性이 크다. 中流層의 兒童이 혼자 방을 쓰면서 자는 比率은 貧民層 兒童의 두 배나 되고 있다.

兒童의 자기집에 대한 態度에 관한 質問은 친구집과 比較해서 應答을 要求했는데 그 應答에 따라서 理由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동네에 대한 知覺程度를 調査하고 그에 대한 理由도 밝혀 보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다. L.Cole은 教育的 家庭이란, 家庭의 支配로부터 解放되는 일, 父母가 變化하는 社會에 適應하는 일, 自己家庭에 대해서 矜持를 가지는 일, 家庭이 安定되는 일, 家庭이 調和를 이루는 일, 父母는 언제나 子女에 대하여 親切하고 模範이 되는 일, 家庭이 언제나 즐거운 곳이 되는 일 등의 條件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家庭이라 하였다.

兒童의 恐怖에 대한 調査로서 世上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對象을 應答하게 했는데 이것은 心理的인 측면에서 測定이 要求되는 것이었다. Hurlock(1975)에 의하면 人間은 어린 兒童의 時節에 다른 어떤 時期에 있어서 보다 恐怖를 많이 갖는다. 知能이 發達되고 前에 겁내던 것이 대부분 무해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理解하게 되면 恐怖心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兒童의 環境과 恐怖는 낮

선 場所, 낯선 사람, 騒音이 심한 場所등과 關聯지을 수 있다.

兒童이 어떤 物件을 갖고 싶어하는 생각은 一種의 好奇心에서 나온 것이다. 어떤 兒童들은 이상한 것을 보게 되거나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 自發적으로 好奇心을 갖는 경우가 있다. 어린 兒童들은 여러가지 事物에 대해 好奇心을 갖는다. 어린 兒童들로 하여금 好奇心을 갖게 만드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兒童이 살고 있는 環境에 달려있다 (Mussen, 1979). 好奇心이 생겼을 때, 兒童은 探索하고자 하는 自然的인 傾向으로 말미암아 觀察을 하게 된다. 好奇心을 갖게 하는 對象을 다루다가 그 對象에 포함된 危險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다치기도 한다. 探索은 兒童이 살고있는 世界에 대한 知識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經路이다. 그러므로 環境은 兒童發達에 중요한 役割을 한다.

놀이는 外部의 힘이나 強制에 의하지 않고 自發성을 띠며 즐거움을 주는 活動이면 어느 것이나 해당이 된다. 놀이는 活動의 다른 어떤 單一한 形態가 할 수 없는 方法으로 兒童이 肉體的, 情緒的, 社會的, 道德的으로 發育할 수 있는 機會를 兒童에게 提供한다. 이런 까닭에 한 두가지 理由로 놀 機會를 상실한 兒童은 初期兒童기를 스스로 놀이라고 看做하는 活動으로 주로 時間을 보낸 兒童보다 훨씬 덜 適應된 人物로 發育하게 된다. 놀이가 갖는 價値는 Hurlock에 의해서 잘 밝혀져 있다.

놀이터가 없는 경우의 놀이 場所에 대한 應答中에서 자기집 다음에 比率이 높은 것이 친구집이다. 물론 놀이터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은 극히 自然스러운 일이겠지만 노는 場所가 없을 때에 친구집에 가서 같이 놀는다는 친구를 자기집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또 하나의 決定을 아동 스스로가 해야한다. 就學前의 兒童들의 交友關係는 놀이의 發達과 밀접한 關係가 있다. Part. M.의 研究에서도 밝혀져 있듯이 兒童은 2세부터 平行的 活動을 보이고 있고, 3세부터는 聯合的 놀이

나 協同的 놀이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平行的 活動은 엄밀한 意味에서는 個人活動이지만 적극적인 社會參與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兒童의 發達을 위해서는 친구의 訪問에 대해 상당히 開放을 할 필요가 있다. 앞의 資料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친구가 집에 와서 같이 놀기를 원할 경우의 어머니의 허락정도에 대한 比率을 참고적으로 밝혀보면 허락이 90%이상이었으며, 허락않음이 10%이하로 나타나 있다.

이상과 같이 兒童發達에 關한 生態學的 環境要素를 現場調查資料를 통하여 정리해 보았다. 兒童自身에 대한 要素를 포함하여 家庭環境, 놀이터 條件, 동네 環境에 대한 基本的 要素를 파악함이 이 研究의 目的이었다. 緒論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兒童發達에 미치는 生態學的 要因은 너무 복잡하고 生態學的特性이 文化圈마다 相異하기 때문에 하나의 特定한 方法을 使用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Bronfenbrenner (1977)가 主張하고 있는 生態學과 發達心理學의 理論的인 一致可能性을 基礎로 하여 Barker (1978)가 提示하는 行動場 (behavior setting)의 分析과 記述方法은 다른 學者들에 의해 이미 많이 使用되고 實驗되고 있어 그 方法論의 可能性이 엿보이고 있다. 이 研究의 調查資料를 토대로 하여 次後에는 行動의 場, 즉 生態環境의 變化속에서 兒童이 어떠한 影響을 받는가하는 環境變化와 兒童發達과의 關係를 研究하는 것이 한층 進一步한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調查結果에서 發見된 사실을 根據로 하여 몇가지 提言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1) 貧民地域에 사는 兒童의 父는 中流層에 비해 知的인 能力이 크게 要求되지 않는 職業(예, 商業)을 가지고 있으며, 母도 父와 함께 같은 職業을 갖고 있는 比率이 中流層보다 훨씬 높다.

(2) 貧民地域의 兒童은 獨房에서 잠을 자는 경우는 中流層의 兒童에 비해 折半程度밖에 안된다.

(3) 兒童이 發病하였을 경우에 年令이 높아 질수록 病院에 가서 治療시키지 않고, 藥局이나 집에서 治療하는 傾向이 많다.

(4) 貧民地域의 兒童이 中流層의 兒童에 비해서 자기집에 대해 좋은 評價를 하지않는 態度를 가지고 있다.

(5) 貧民地域 兒童의 將來希望職業은 父母가 兒童에게 期待하는 希望과 一致하는 程度가 中流層에 비해 낮다.

(6) 貧民地域의 兒童은 中流層에 비해 친구와 같이 지내면서 노는 경우가 더 많다.

(7) 놀이터의 놀이器具數는 貧民 地域과 中流層間의 差異가 크게 나지는 않지만, 놀이터의 自然環境施設(예, 나무, 잔디, 꽃밭)은 貧民地域이 中流層에 비해 그 比率이 折半程度에 不過하다. 놀이터의 數는 양쪽 다 絶對數가 모자라고 있다. 따라서 놀이터가 없는 경우의 놀이場所는 자기집, 친구집이 으뜸 順이다.

(8) 貧民地域의 동네環境은 中流層보다 兒童들이 가서는 안되는 場所가 훨씬 많다.(예 유흥가, 불량배가 다니는 거리, 공장공해지역)

(9) 兒童發達에 대한 環境의 要素 把握에서 兒童의 年令에 따라 變因들의 比重이 크게 左右되지는 않고 있다.

參 考 文 獻

- Argyle, M., Non-verbal communication in human social interaction. In R.Hinde (Ed.), Non-verbal communication,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2.
- Barker, R. G., Ecological Psychology. Concepts and methods for studying the environment of human behavior, Stanford, Stanford Uni.: press, 1968.
- Barker, R. G., Exploration in ecological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1965, 20, 1-14.
- Bronfenbrenner, U., Toward an experimental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1977 b, 32, 513-531.
- Crow, L. D., & Crow, A., Child Psychology, New York : Barnes & Noble, Inc., 1969.
- Hilderbrand, V. Introductio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1971.
- Hurlock, E. B., Child Development (5th/ed), New York : McGraw-Hill publication, 1975.
- Kelley, G. A., The Psychology of Personal Constructs, New York : Norton, 1955.
- Koffka, K. Principles of Gestalt Psychology,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1935.
- Lewin, K. Psychological Ecology, In D. Cartwright (Ed.), Field theory in social science : selected theoretical papers by Kurt Lewin, New York : Harper & Row, 1951.
- Lindzey, G. & Aronson, E.,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III. (2nd/ed.) California :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7.
- Mussen, P. H. Hand book of research methods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 John Willey & sons, 1960.
- Mussen, P. H., The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the Child (2nd/ed.),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973.
- Mussen, P. H., Conger, J. J. & Kagan, J.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5th/ed.),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1979.
- Oerter, R., Dreher, E. & Dreher, M. Cognitive Socialization and Subjective Structure, München : Oldenbourg, 1977.
- Papalia, D. E. & Olds, S. W., A Child's World, New York : McGraw-Hill, 1975.

Piaget, J., Piaget's Theory. In P. H. Mus-
sen (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 (3rd/ ed.). New York : wiley,
1970.

Wicker, A. W. Ecological Psychology :
Some recent and prospective developmen',
American psychologist, 1979, Vol, 34,
755-765.

Warner, W. L. & Warner, M. H., What You
Should Know about Social Class, Chicago
: Science Research Associates 953.

Wright, H. F. & Barker, R. G., Psycho-
logy and the Problem of Psychologic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1949,
20, 131-143.

Abstract

An Ecological Study on the Environment of the Children in the Deprived Areas in Seoul

Kim, Chong Soon

The present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poverty areas in Seoul from the perspectives of children's development. More specifically,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o examine environmental ecology of the poverty areas and its potential psycho-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Three poverty areas and 150 children currently living in the areas were sampled; 70 children from middle class families and 88 from lower class respectively.

Focal ecological aspects surveyed family environment, outdoor play ground and facilities, and village housing structures. Psycho-social dimension's development dealt with in the study included children's perceptions of parental child rearing practices and role-taking, and children's future perception and perspective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and observations using structured formats.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rom the data:

1. Children from the poverty families showed a higher tendency to have working mothers than those from middle class.
2. The rate of having single room is higher for children from middle class by two times than from lower class.
3. Children from lower class tended to have less favorable perceptions of attitudes toward their own families than those from middle class.
4. The likelihood of showing discrepancy in vocational choice for childre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s higher for children from lower class and those from middle class.
5. Children from lower class tended to allot more time in playing with peers than those from middle class.
6. The size of outdoor play ground are inadequately poor both for middle and lower class children. The inadequateness is particularly severe for the lower class children, showing that the size and facilities of playing ground available for the child from lower class is less than half compared with those of the children from middle class.